

찬란하고 위대한 백제역사의 숨결

위대한 금강역사여행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대전·공주·부여·익산
위대한 금강역사여행

행정구역이 아닌 테마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바라보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정을 다지기 위해서, 둘만의 로맨스를 위해서, 휴식과
쉼이 필요해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등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여행을
생각합니다. 그런 곳을 찾으려고 긴 여정을 계획하고, 목적에 꼭 맞는 여행지를
발견하면 그곳이 지구 반대편이라고 하더라도, 몇 시간이 걸려도 비행기나 배에
올라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여행이 꼭 멀리 떠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내가 몰랐던 멋진 곳이 내 주위에 있다면 굳이 멀리 떠날 필요가 있을까요?

멀리서 찾지 않아도 멋진 곳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기에,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이기에 미처 그 가치를 모르고 있던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땅,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곳곳을 여행지의 관점에서 다시금 살펴
보고 그 가치를 재 조명해 보고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을 선정해 알리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10개 권역을 선정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권역에 있는 3~4개 지방 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명소를
개선하고 연계하여, 테마가 있는 고품격 여행코스로 여행자들을 맞이합니다.
이 책은 바로 그 고품격 여행코스를 알리는 여행책자이자 가이드북입니다.



blog.naver.com/ktourbest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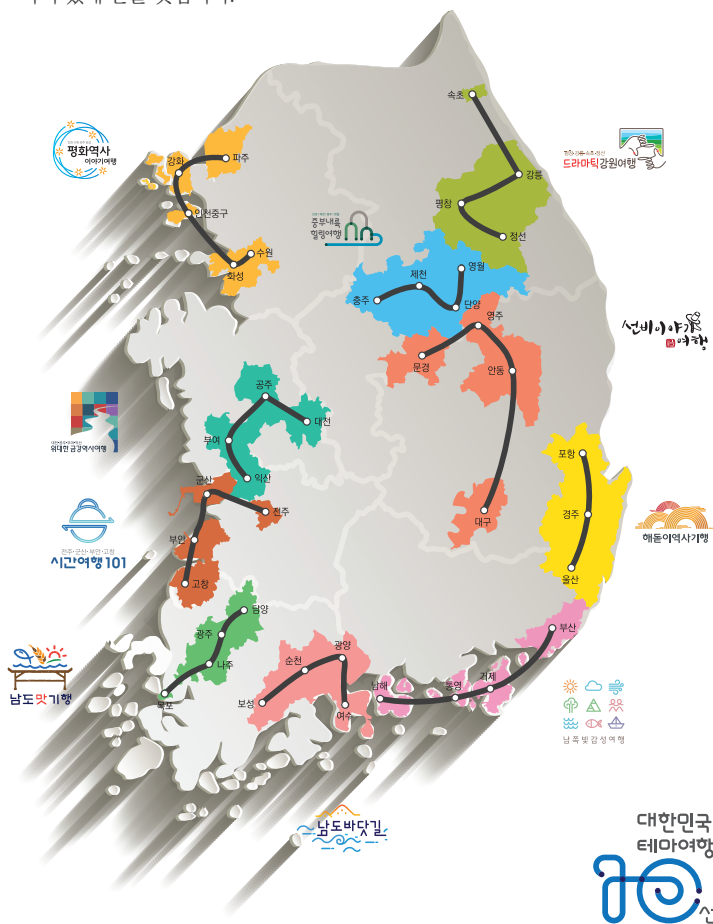


[instagram.com/ktourbest10](https://www.instagram.com/ktourbest10)



ktourbest10.visitkorea.or.kr

대한민국의 전국을 아우르는 총 39개의 도시, 10개의 색다른 테마가 당신의 여행을 더 즐겁고 가치있게 만들 것입니다. 꼭 보아야 할 곳, 꼭 들려야 할 곳을 혹시나 놓치고 지나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각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와 숨겨진 명소까지 남김없이 담았으며, 여행하는 동안 여행객 모두가 즐겁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가득 담았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은 당신의 여행을 더 즐겁고 가치 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그곳으로의 초대

04. 테마여행 10선 사업 소개

그곳의 분위기

10. 권역 테마 소개

그곳의 이야기

12. 대전

18. 공주

26. 부여

32. 익산

그곳의 기억

.....

14-17. 대전

20-23. 공주

28-31. 부여

34-35. 익산

39. 보조코스

그곳의 재미

.....

40. 축제

44. 쇼핑(음식, 특산물)

그곳에 머무르기

.....

46. 숙박

48. 교통

금강의 물줄기를 따라 위대한 백제를 만나다



대전 우암사적공원



위대한 금강역사여행은 선사시대부터 백제를 거쳐 조선과 근대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다시 돌아 볼 수 있는 여행지이다.

지도상에선 이미 그 흔적을 감춘 백제지만 백제의 찬란한 유적은 금강을 따라 유유히 흐른다



대전, 공주, 부여, 익산은 행정구역 상 시, 도의 경계는 다르지만 금강 줄기를 따라 연결된 지역입니다. 지금은 전라도와 충청도로 나누어져 있지만 삼국 시대에는 찬란하던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했던 지역입니다.

개로왕 전사 후, 백제는 지금의 서울 지역을 수도로 하던 한성 백제 시대를 접고 400여 년의 터전을 뒤로 한 채 남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주왕이 지금의 공주인 <웅진>에 도읍을 정하니 이로써 웅진 백제, 60여 년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후 다시 부여로 천도를 하게 되고 이곳이 후기 백제의 찬란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꽃피웠던 사비백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배경으로 금강의 물줄기를 함께 품고 있는 대전, 공주, 부여, 익산은 백제 역사의 찬란했던 영광과 패배의 순간을 모두 함께 했던 유서 깊은 역사적 현장이 되었습니다.

백제문화의 위대함은 주변 동아시아 국가의 문화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중국, 일본 등과 활발한 문화교류를 통해 일본의 아스카 문화와 통일신라시대의 예술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일본에서는 현재까지도 백제문화의 영향을 받은 문화유산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백제는 안타깝게도 신라의 삼국 통일에 의해 사라졌지만 백제문화는 우리 문화의 원류가 되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백제가
삼국을 통일했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가정을 한번쯤
해보게 된다.

위대한 금강역사여행 권역은 금강을 끼고 흐르며 유구한 백제의 문화를 품고 있는 곳입니다. 지도상에서는 이미 그 흔적을 감추었지만 백제의 위대한 문화유산은 현재까지 남아 이 지역을 돌아보는 내내 백제문화의 우수성에 새롭게 놀라고 감탄하게 됩니다. 신라역사를 알고 싶다면 경주에 가는 것처럼 백제 역사를 알아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위대한 금강역사여행 권역으로 떠나보십시오.



대한민국 역사를 한발에서 돌아보다

대전은 대한민국 교통의 요지라 할만한 곳입니다. 철도가 이곳에서 경부선과 호남선으로 나뉘며 고속도로 또한 대전을 기점으로 경부와 호남고속도로로 나뉩니다. 대전을 목적지로 출발하지 않아도 누구나 대전을 거쳐가게 됩니다. 1905년 일제가 경부선 철도를 부설하며 '한밭'마을을 통과지점으로 삼으면서 대전은 현재의 지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철도가 들어서자 일본인 거류민이 증가하고 자연스레 일본 문화가 유입되어 일본풍의 시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렇듯 대전은 선사시대의 유적부터 삼국시대와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역사와 호흡을 함께 한 곳입니다.

백제시대의 대전은 국경을 둔 전략적 요충지로 금강과 주변의 천연 지형물을 이용해 공주 웅진성과 부여 사비성의 위성 역할을 담당했으며 그 흔적으로 연축동산성과 구성동산성, 적오산성과 흑석동산성 등 다수의 산성들이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대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근현대 전시관은 20세기 초부터 최근까지 100년간의 대전 역사를 담고 있으며 근대문화유산인 옛 충남도청사 본관에 자리해 있어 그 가치를 더 하고 있습니다. 옛 대전여중 강당 자리에 만들어진 대전 갤러리는 아르누보 풍의 부드러운 지붕선과 고전주의 양식을 잘 나타내는 건축물로 평가되어 2001년 대전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외부로 돌출된 창이 마치 추상작품인 듯 예술적인 미학을 보여주는 창작센터는 20세기 중반 서양 기능주의 건축에 영향을 받은 한국 근대 건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곳으로 대전 출신 배한구 건축가가 설계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대전에는 보문산 공원, 유성온천 등이 있어 연중 여행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중부권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중심 도시인 대전은 행정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곳이기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꼭 둘러보아야 할 곳입니다. 거쳐가는 곳이 아니라 여행의 목적지로 재조명되어야 할 숨겨진 역사박물관 같은 곳, 이곳이 바로 대전입니다.



근현대사전시관(옛 충남도청)

대전에 현존하는 근대 관청 건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1932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80년간 도청사로 사용되다가 충남도청이 이전하면서 대전근현대사전시관이 되었다. 내부는 1930년대 유행하던 건축방식이 그대로 남아있다. 180도로 열리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면 아치마다 레이스를 덧댄 듯 장식된 스크래치 벽돌이 공간을 우아하게 만든다. 시대를 상징하는 이 건축물은 '변호인'부터 '미스터션샤인'까지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가 되기도 했다.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 ☎ 042-270-4535





대전갤러리

1937년 대전여중 강당으로 지어진 건물로 문화재자료 제 46호로 지정되었다. 한눈에 보아도 고전적인 맵시가 풍기는 독특한 건물이다. 새로운 건축을 뜻하는 아르누보 양식이 돋보여 대전 원도심 투어를 하는 여행자들이 빼놓지 않는 중요 건물이다. 대전갤러리가 위치한 대흥동 문화거리는 '예술을 통한 도시 재생'을 모토로 곳곳에 그림과 조형물로 꾸며져 있다. 화방과 화랑이 많았던 이곳에 대전갤러리가 자리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른다. 가장 오래된 오원화랑을 비롯해 갤러리와 화방, 필방, 공방 등 예술을 만들고, 사고, 드나드는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문화예술의 보물창고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30길 69 ☎ 042-270-4522





대전창작센터

1958년 '농산물 검사소 대전지소'였던 곳이 지역 작가 발굴 및 작품 전시 공간이 되었다. 근대건축물의 모습이 그대로 복원된 대전창작센터는 '대전시 좋은 건축물 40선'에 선정되었을 만큼 그 자체로 예술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100호이며, 민간 화랑들과 함께 대흥동 일대를 열린 미술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중이다.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470

☎ 042-270-7390



백제 문화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가 인정했다



공주가 역사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백제의 웅진 천도가 이루어지면서 부터입니다. 475년 고구려 장수왕의 남침으로 백제의 한성이 점령당하고 개로왕이 피살되자 그 뒤를 이은 문주왕은 도읍을 웅진, 즉 지금의 공주로 옮기고 고구려의 침략에 대비해 산성을 쌓았습니다. 이후 다시 부여로 다시 천도했지만 신라가 당과 연합하여 백제를 공격하자 의자왕은 결국 항복하게 됩니다. 신라와 함께 백제를 점령한 당나라는 공주에 웅진 도독부를 두고 군병을 주둔시켰으나 당의 소정방이 의자왕과 백제의 왕족을 데리고 당으로 돌아감으로써 폐지되었습니다.

백제의 두 번째 수도였던 공주에는 백제의 역사가 담긴 유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문주왕 1년에 지금의 서울지역인 한산성에서 공주로 도읍을 천도할 때, 도읍을 수호하기 위해 축조한 공산성은 사적 제12호로 지정되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된 자연의 요지입니다. 성안에는 웅진 도읍지로 추정되는 왕궁지를 비롯해 고려 시대 때 창건한 영은사와 조선시대 인조가 이괄의 난을 피해 머물렀던 쌍수정과 사적비, 남문인 진남루와 북문인 공북루 등이 남아 있어 역사적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무령왕릉은 웅진시대 백제의 왕과 왕족들의 무덤으로 원래는 17기의 무덤이 있었지만 현재는 1~6호 기와 무령왕릉을 포함한 7기만이 복원되어 공개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주박물관은 대전, 충남 지역에서 출토된 국보 19점과 보물 3점 등 문화재 10,000여 점을 보관하고 있어 백제 시대의 유물과 유적을 직접 볼 수 있는 소중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유적, 건축물, 장소에만 한정적으로 지정되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공주의 공산성이 지정된 것만 보더라도 백제문화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산성

공주는 백제의 첫번째 도읍지인 한성의 하남위례성이 함락된 뒤 고르고 골라 다시 터를 잡은 백제의 두 번째 도읍지다. 그런 공주를 대표하는 유적지가 공산성이다. 봄에는 금서루 앞 철쭉이 피어나고 여름에는 백제의 치열한 전투를 재현한 미디어파사드가 시작된다. 가을에는 영은사 은행나무를 시작으로 단풍이 물들며 겨울에는 토성이 제 속살을 드러낸다. 흙을 다져 만든 토성은 조선 초기 개축을 시작해 대부분 석성으로 덮였으나 일부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밤이면 성곽에 조명이 들어와 백제의 곱고 우아한 선을 새롭게 볼 수 있다.

의자왕을 적에게 팔아먹은 예식진

나당연합군에 의해 사비성이 무너지고 공산성으로 도망한 의자왕이 급작스레 항복을 한 이유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던 중 중국에서 한 묘지병이 발견되었다. 백제인 예식진의 것인데 '예식진이 의자왕을 데려와서 항복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도망의 아이콘, 인조

이괄의 난으로 한양이 반란군에게 점령되고 인조는 공산성으로 피신한다. 난이 평정되고 한양으로 올라왔으나 다시 병자호란이 터지고 인조는 남한산성에 한번 더 몸을 숨기지만 결국 항복하고 만다.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280 ☎ 041-856-7700



송산리 고분군

공주 송산의 남쪽 경사면은 백제의 왕과 왕비가 묻혀있는 송산리 고분군이다. 17기의 무덤이 있었으나 석실로 된 1호분에서 5호분과 국내유일의 벽돌고분인 6호분이 발굴되었다. 우리나라의 벽돌무덤은 고조선 이후 볼 수 없었으나 백제와 교류하던 중국 양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1971년 여름장마가 길었다. 6호분이 물에 잠길까 봐 배수로를 파는데 삽에 '탁'하고 무엇인가 부딪혔다. 1500년 넘게 지하에 잠들어 있던 무령왕의 묘였다.

도굴을 피한 처녀분

무령왕릉은 일명 처녀분이라고 해서 도굴 흔적이 없다. 백제고분은 일제강점기에 대부분 도굴되었는데 운이 좋았다. 1938년 일제강점기에 한문교사로 공주에 온 가루베 지온은 6호분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도굴했다. 6호분 뒤에 있던 무령왕릉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천운이었다. 그는 풍수지리를 공부해 무령왕릉의 고분을 구름이라 생각해 살펴보지 않았던 것이다.

충청남도 공주시 왕릉로 37-2 ☎ 041-856-3151





국립공주박물관

1940년 일제강점기 때 조선시대 관아건물인 선화당에서 백제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해방 후 1946년 국립박물관 공주 분관을 거쳐 1975년 국립공주박물관으로 개관했다. 국립박물관 중 가장 오래된 박물관이다. 1971년 송산리 고분군에서 무령왕릉이 발견되었으나 서울로 모두 이전했으며 2004년 현재의 박물관이 개관하면서 무령왕릉 출토유물을 포함한 국보 19점, 보물 4점, 총 4만 여점의 문화재를 수집, 보관하고 있다.

무령왕릉을 통해 백제를 보다

무령왕릉실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 108종 4,6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마치 무덤 안 공간을 분리한 듯 전시하고 있어 관람자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석수는 무덤 입구에서 왕을 지키고 밖에서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상상속의 동물이다. 날개가 달린 석수가 왕을 두고 하늘에 오를 수 없도록 한쪽다리를 부러뜨려 놓았다. 석수 뒤에 지석이 있다. 무덤주인을 알려주는 이력서다. 2개의 지석은 앞뒤 면에 글을 새겨 총 4면에 달하는데, 1면에는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라 적혀있고 2면은 방위 내용을 알려주는 간지, 3면은 백제 사마왕이 묻힌 땅을 토지 신에게 산다는 토지매입서, 4면은 이후 함께 매장된 왕비의 죽은 날과 묻힌 날이 적혀있다.

충청남도 공주시 관광단지길 34 ☎ 041-850-6300

A scenic photograph of a pond at dusk. In the foreground, there are vibrant orange lily-like flowers. A traditional Korean bridge with red railings and warm yellow lights spans the pond in the middle ground. The bridge's lights and the surrounding greenery are reflected in the calm water. Willow trees with long, drooping branches frame the left side of the image. The sky is a soft, pale blue.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_ 아놀드 토인비

부여 공남지





백마강 황포돛배에 몸을 싣고 백제의 영광을 되돌아보다

백제의 옛 도읍지였던 부여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함께 백제의 유물과 유적이 많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백제의 마지막을 부여와 함께 했으니 백제 문화의 우수성이 이곳, 부여에 온전히 남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궁궐의 남쪽이라는 뜻을 가진 궁남지는 백제가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정원입니다. 백제의 단아한 멋을 한껏 느낄 수 있으며 백제의 왕과 왕비가 된 서동과 선화공주의 설화 같은 사랑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궁남지가 일본 정원 문화의 원류가 되었다는 기록이 <일본서기>에서 발견되어 백제문화에 대한 자긍심에 어께가 우쭐해지기도 합니다. 연못 안에 있는 정자인 포룡정과 한둘한들 어우러지는 버드나무, 그리고 연못 위의 아름다운 연꽃은 전국의 사진작가들을 불러 모으며 유명한 출사지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궁남지의 아름다움에 젖어 들자면 그 누구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머물게 됩니다.

부소산성은 사적 제5호로 지정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된 부여가 자랑하는 역사적 명소입니다. 538년 백제 성왕이 웅진에서 사비로 도읍을 옮긴 후부터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123년 동안 백제의 도읍지였으며 당시에는 사비성으로 불렸습니다. 538년 수도 천도 직후에 사비를 수호하기 위해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부소산성의 산책길을 걷다 보면 낙화암이 보입니다. 낙화암에는 외적에 항거하며 강물에 꽃처럼 몸을 던진 궁녀들의 사연이 슬픈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궁녀들의 넋을 기리는 사찰인 고란사 선착장에서 배를 타 볼까요? 백마강을 가로지르며 바라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함께 백제 명멸의 순간이 저절로 떠오르는 곳입니다.

국보 제9호인 정립사지 오층석탑은 석탑이지만 독특하게도 목탑의 양식을 따르고 있어 역사적으로나 건축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탑입니다.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백제를 평정하고, 이 탑에 정복 기념 비문을 새겼다 하여 평제탑으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백제문화의 진면목을 보고 싶다면, 부여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기에 충분한 곳입니다.

부소산성

부여는 백제가 사비(부여)로 수도를 천도하면서 만든 계획도시다. 평지에 사비성을 만들고 왕궁을 수비하는 배후산성, 부소산성을 만들어 최후 방어기지로 사용했다. 해발 106m의 낮은 산이지만 북으로 백마강을 두어 천혜의 요새다. 또한 나성을 만들어 도시 전체를 방어하는 도성 개념을 실현한 예다. 산책코스는 백제 말의 충신인 성충, 홍수, 계백의 위패를 봉안한 삼충사에서 시작한다. 동쪽 언덕의 2층 누각인 영일루는 왕과 귀족들이 매일 계룡산 연천봉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고 태평성대를 기원했다. 군창터는 1915년 불에 탄 곡식이 발견되어 군량미를 비축한 터로 밝혀졌으며 군사들이 만든 움집을 전 시한 수혈건물지도 있다. 부여 최고의 전망대인 반월루에 오르는 것도 추천한다. 부소산성의 하이라이트는 삼천궁녀가 떨어졌다는 전설이 있는 낙화암이다. 이곳에 들러 궁녀의 영혼을 위로한 뒤 임금이 마신 약수터 고란사까지 둘러보자.

절벽에서 꽃이 떨어지다

백제 의자왕 때 나당연합군이 쳐들어오자 사비성을 버리고 부소산성으로 피해 문을 걸어 잠근다. 그러나 곧 적들이 들이닥치고 겹겹이 쌓은 토성이 함락되면서 마지막 방어선인 백마강 절벽까지 몰렸다. 궁녀들은 치욕스런 삶을 앞에 두고 서로 이끌고 밀며 절벽에서 떨어졌다. 사람이 떨어진 바위, 타사암이다. 치마가 위로 올라가 얼굴을 가리니 두려움이 덜했을까. 그 모습을 보고 꽃이 떨어지는 것 같다하여 낙화암이라 부른다.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15 ☎ 041-830-2880





정림사지 오층석탑

백제 예술을 일컬어 ‘검이불루 화이불치 儉而不陋 華而不侈’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고 한다.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이런 백제의 예술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물이 아닐까. 미륵사지 석탑과 함께 남아있는 유일한 백제의 탑이다. 석탑 외각은 와적 기단이 감싸고 있다. 기와를 이용해 쌓은 건물 기단으로 사비시대 건축물에서 볼 수 있다. 목탑의 미학적 구조는 남기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석재를 사용했다. 얇고 넓은 지붕들은 끝을 살짝 올려 곡선미와 반전미를 선사한다. 단단하기로 유명한 화강암으로 만들었다고 보기엔 무척 정교하고 매끈하다. 높이 8.3m의 석탑은 집착에 가까운 정도로 균형을 맞춰 제작되었다.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 041-832-2721



궁남지

‘궁의 남쪽에 못을 파고 20여리나 먼 곳에 물을 끌어들여왔다.’ 정림사지가 있는 사비도성의 남쪽에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 정원이다. 신선이 노는 산인 방장선산을 형상화해 만들었다고 한다. 연못 중앙의 섬에는 정자 포룡정이 세워져 있다. 여름에는 수련과 가시연 등 수경식물이 피어나고 ‘3월이면 큰 연못에 배를 띄워 놀았다’는 고서를 바탕으로 뱃놀이 체험을 할 수 있다.

서동과 선화공주의 천년 사랑

궁남지는 서동의 이야기가 담긴 여행지다. 서동의 어머니가 궁남지의 용과 교통하여 서동을 낳았다. 서동요를 유행시켜 선화공주와 결혼한 서동은 신라를 그리워하는 선화공주를 위한 선물로 궁남지를 지어주었다.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52-1 ☎ 041-830-2880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_ 조지 산타아나



미륵사와 왕궁리는 백제의 숨겨진 보석이다

익산은 예로부터 호남의 교통 분기점이었습니다. 충청에서 호남으로 가는 길목인 데다 철도의 호남선과 전라선이 나뉘는 곳이기도 해서 교통 분기점으로서의 역할을 오랫동안 수행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교통의 중심지였지만 익산 하면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어 그저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곳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익산의 금마면, 왕궁면, 고도리 등은 그 마을 이름에서 마한과 백제의 중심지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백제문화를 이해하기에 더없이 소중한 곳이며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곳입니다.

익산의 명소로 꼽히는 미륵사는 백제의 30대 왕인 무왕이 세운 사찰로 동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곳에 있는 미륵사탑은 한국 석탑의 원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며 역사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백제문화가 궁금한 국내 여행객은 물론 세계인의 발길도 끊임없이 이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왕궁리 유적 역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최대 규모의 백제유적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역사적 사실들이 많이 남아 있어 백제사의 미스터리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학계에서는 이곳이 왕도였거나 왕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던 곳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20여 년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백제 무왕 때 왕궁으로 건립되었다가 후대에 왕궁의 중요 건물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사찰을 건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곳만 찾아 다니는 여행은 그 유명세와 인파에 떠밀려 쉽게 지치곤 합니다. 익산은 한적하고 여유롭게 백제문화의 숨겨진 역사를 찬찬히 살펴볼 수 있는 보석 같은 곳입니다.



미르사지



미륵사지

〈삼국유사〉에 따르면 무왕이 왕비와 길을 걷다 미륵 삼존을 만나 639년 그곳에 절을 지었다. 이는 무왕이 미륵의 선택을 받은 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귀족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장치였다. 미륵사지는 신라 황룡사에 비견될 만한 대찰로 중앙에 목탑을 두고 양쪽에 서탑과 동탑을 두었다. 현재 미륵사의 흔적은 서탑을 제외하곤 거의 없다.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 3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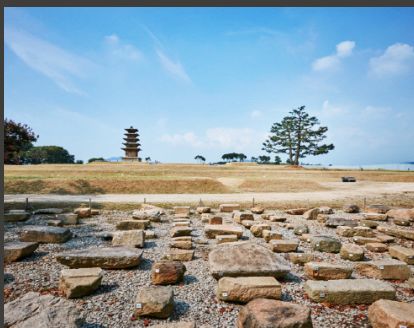
☎ 063-859-5708

왕궁리유적

김정호의 <대동지지>에서 궁터로 기록된 왕궁면은 백제 무왕이 지었다는 왕궁터가 있다. 궁궐 주위에 직사각형의 담장을 만들고 14채의 건물터와 인공연못을 판 후원도 발견되었다. 이에 무왕이 사비의 귀족세력을 피해 왕궁리 지역으로 천도를 시도했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 덕분에 백제 왕경들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때 같이 등재되었으며 지속적인 발굴로 백제 역사의 베일을 벗길 수 있게 되었다.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궁성로 666

☎ 063-859-4631





사람이 목숨을 걸
 만한 명분에는
 네 가지가 있다
 신앙과 조국, 가족과
 주권이 그것이다
 이것들을 위해서라면
 누구나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 나 또한
 백제와 백성들을
 위해 기꺼이 한
 목숨을 바칠 것이다

_ 계백장군

역사는 모든 과학의 기초이며
인간정신의 최초 산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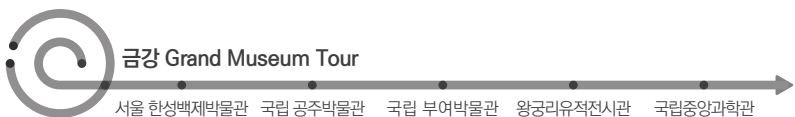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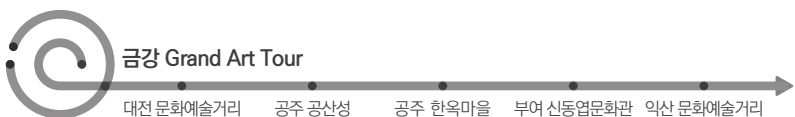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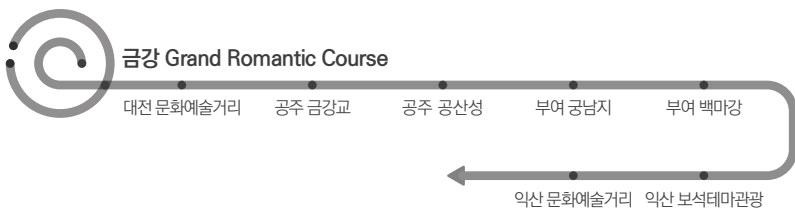
_ 토머스 칼라일





미래를 내다보고자
하는 자는 과거를
뒤돌아보아야 한다
인간사는 선대의 그것을
답게 되나니, 이는 그 사건들
이 그때 살던 사람들이든
현재를 사는 사람이든
동일한 성정을 지닌
사람들에 의해 창조되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며
그로써 그것들은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_ 마키아 벨리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의 향기

대전 국제와인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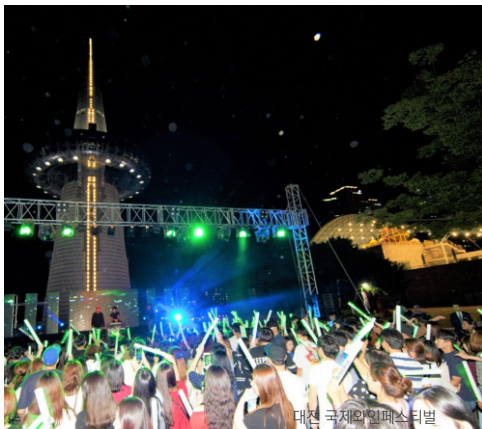
전 세계 10,000여종의 와인 무료시음! WSET와 인마스터클래스와 문화공연은 덤! 대전은 국내 최초의 와인 생산 및 유통 지역으로 1969년 7월 우리 대전의 산내포도를 이용하여 선리포트와인을 생산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근간으로 탄생한 대전국제와인페어는 아시아 대표 와인품평회인 아시아 와인 트로피와 세계유명 와인 전문가들 초청하는 국내 유일의 와인컨퍼런스와 연계하여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행사로 자리매김 하였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와인 테이스팅존을 운영하며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와인 생산국들이 출품한 약 1만 여종의 와인들을 한자리에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와인전문박람회로서 일반 참관객에게는 각국의 문화와 와인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와인 산업 종사자에게는 비즈니스 교류의 장으로서 국내 와인 유통 산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기. 8~9월 T. 042-250-1353~1349



대전 국제와인페스티벌



대전 국제와인페스티벌

*축제 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공주 석장리 세계구석기축제



공주 석장리 세계구석기축제

공주 석장리 세계구석기축제

석장리 세계 구석기 축제는 다양하고 풍성한 구석기 문화·예술 행사를 통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구석기 체험마당으로 정착되고 있다. 구석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관광객의 체험·학습 축제로, 해마다 5월에 개최되며 공연, 전시,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이벤트로 이어지는 축제이다.

시기. 5월 T. 1899-0088 / 041-840-8112



공주 석장리 세계구석기축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의 향기



부여 서동연꽃축제

서동요로 잘 알려진 부여 궁남지는 백제 무왕 35년(634년)에 만들어졌으며 현존하는 대한민국 최고(最古)의 인공연못으로, 매년 7월 부여 서동연꽃축제 기간 동안 백련, 홍련, 수련, 가시연 등 10만 여평 50여종의 다양한 연꽃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다. 연못 한 가운데 용을 품었다는 포룡정과 연꽃단지 곳곳에 추억 어린 원두막이 놓여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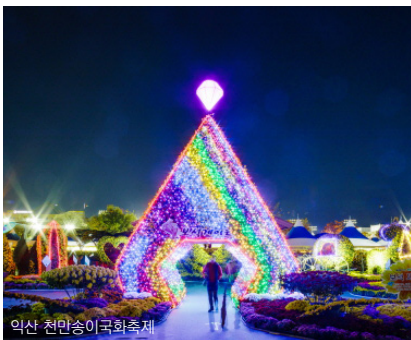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는 물론 야생화와 수생 식물이 있어 아이들의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인기가 높다. 대한민국 여름철 대표축제인 <부여서동연꽃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선정 2019 대한민국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선정될 만큼 수려한 궁남지의 경관과 천혜의 자연조건이 구비된 축제이다.

시기: 7월 T. 041-830-2211~2212

*축제 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부여 서동연꽃축제



익산 천만송이국화축제

익산 천만송이국화축제

익산 천만송이국화축제는 익산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리는 축제이며, 도시와 농업이 상생하는 전국 최고 규모의 국화정원으로 형형색색 오색국화와 국화분재, 신품종 전시, 도시농업관, 문화공연, 음악분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가 풍성한 축제이다.

시기. 10~11월 T. 063-859-4977~4334



익산 천만송이국화축제

금강식후경, 여기라서 더 맛있는 매력적인 음식들!

대전-칼국수

비교적 싸고 맛이 좋은 대전의 대표음식 칼국수는 타 지역과는 다른 다양성이 있다. 칼국수를 주력으로 하는 업소마다 매운맛과 담백한 맛을 적절하게 조합한 독특한 맛을 선사하고, 칼국수와 곁들여 먹기에 좋은 수육과 족발, 두부 두루치기, 오징어 두루치기, 파전, 만두, 김밥 등 다양한 메뉴로 즐길 수 있다.



공주-밤

공주 지역의 밤은 당도가 높고 특유의 고소한 맛과 뛰어난 저장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영양분과 무기질이 풍부하여 강장식품, 피부미용식으로 인기가 좋다.



부여-양송이버섯

전국 생산량의 45%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특화농산물로 무기질,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섬유소와 수분이 풍부해 포만감을 줘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익산-황등비빔밥

익산의 황등육회비빔밥은 전국 3대 비빔밥으로 불리기도 한다. 석재산업이 전성기였던 1930년대 바쁜 석공들을 위해 단백질이 풍부한데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비빔밥이 탄생했다.

숙박 안내

대전

굿모닝 레지던스 호텔 휴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73번길 21	042-489-4000	www.hotelrest.co.kr	
유성호텔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로 9	042-822-0100	www.yousunghotel.com	

공주

공주한옥마을	충청남도 공주시 관광단지길 12	041-840-8900	hanok.gongju.go.kr/	
공주ink관광호텔	충청남도 공주시 전막2길 10-10	041-857-7532	gongjuhotel.com/	

부여

롯데부여리조트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00	041-939-1000
백제관광호텔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북포로 108	041-835-0870

익산

함라한옥체험관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함라교동길 25	063-856-3535	www.hamra.kr
웨스턴라이프 호텔	전라북도 익산시 약촌로 10길 18-3	063-720-3000	www.wseternlife.co.kr



한국관광 품질인증 업소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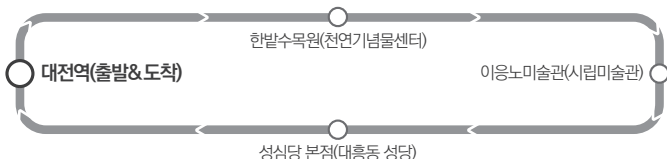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광 사업 범위 내,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품질인증
사무국의 인증을 받은 곳

*상기 속소는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통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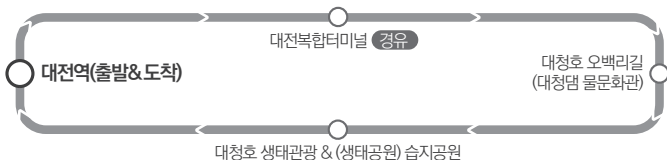
대전 시티투어버스

한밭수목원 투어
(4월~10월,
일요일 오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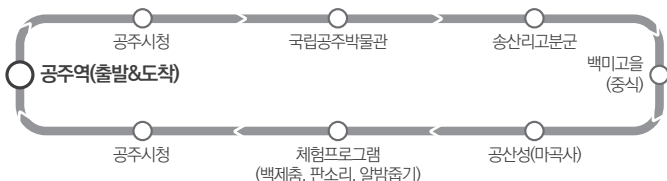
대청호 오백리길투어

(4월~10월,
일요일 오후)



공주 시티투어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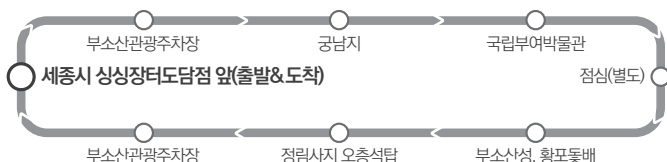
홍미진진공주
시티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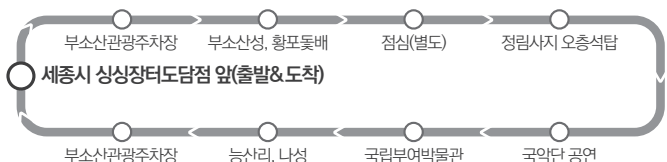
*자세한 사항은 관광안내소 및 해당 지자체에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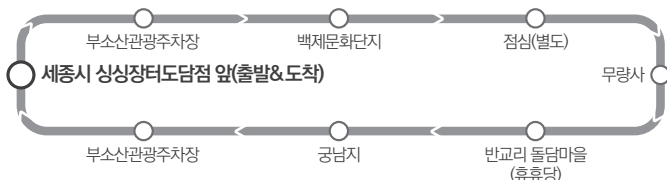
연꽃향 이색투어
(금요일)



백제향 생생투어
(세계유산코스/
토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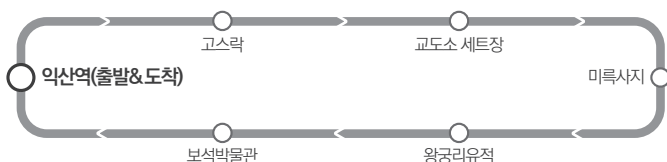


문화향 상신투어
(나의문화유산
답사기 코스/일요일)



익산 시티투어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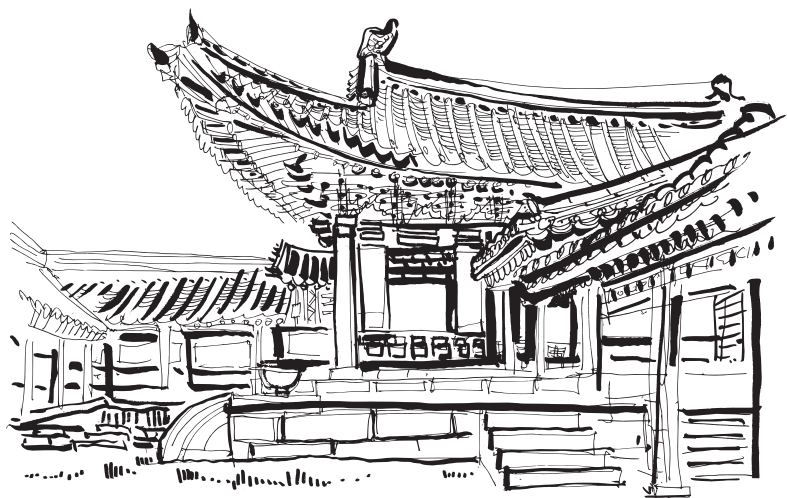
순환형
익산시티투어
(매주 토, 일, 공휴일/
1시간 간격 운행)



익산
숨은보석찾기 코스



*진행 코스 및 일정은 운영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발행처 한국관광공사
(26464)강원도 원주시 세계로10
TEL.033-738-3000

“역사는 유물과 유적을 낳고
유물과 유적은 역사를 증언한다”는 말이 있다.
위대한 금강역사여행은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백제가
남긴 유물과 유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한다.
우리는 그 증언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